

근현대 북유럽 3국으로 유통된 한국 도자의 수집 양상과 성격*

장 지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북유럽 3국의 한국 문화재 유통 배경
- III. 각국 대표 박물관의 한국 도자 수집 양상
- IV. 아카이브 자료 한국 도자의 특징과 성격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근현대 북유럽에서 유통된 한국 도자의 수집 배경과 양상, 그리고 수집품의 조형적 특징 및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는 조선이 개항을 한 후, 해외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 도자는 크게 4시기로 나누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I기는 20세기를 전후한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까지, II기는 일제에 의해 본격적인 문화재 반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1920~30년대까지, III기는 해방 이후, 전후(戰後) 복구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문화재 반출에서부터 이에 대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25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256)

** 張志榮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전문연구원 ccy1203@kookmin.ac.kr
투고일: 2023. 5. 23.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201>

검열이 강화되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 IV기는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개인 수집가의 기증이 증가했던 19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북유럽 3국에 수집된 한국 도자는 각국을 대표하는 3개 기관의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에서는 I기부터 III기까지, 스웨덴에서는 I기에서 IV기까지인 전 시기에, 노르웨이에서는 III기에서 IV기에 한국 도자를 비롯한 한국 문화재를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당시 영국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한국 도자의 매매가를 살펴보고, 이를 중국 도자와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다음으로 북유럽 3국에 수집된 한국 도자의 종류별 기종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식기법과 문양 소재를 분석하여 각국에 수집된 한국 도자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는 고가에 거래된 고려청자와 특정 기준에 따라 수집된 청화백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미술품적 관점에서 수집된 한국 도자를 박물관이 입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과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에는 다양한 종류와 기법을 나타내는 한국 도자가 소량으로만 입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도자를 한국적 특색을 갖는 민속품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해외에 소장된 한국 도자의 유통 배경과 성격을 이전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실제 매매된 가격을 바탕으로 당시 한국 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다는 점, 수집품의 특징을 통해 각국의 수집 성격을 추론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근대 도자, 북유럽, 수집 도자, 한국 문화재, 한국 도자

I. 머리말

한국 문화재는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을 다녀간 선교사, 외교관, 여행자, 군인과 의료진 등에 의해 수집되어 해외로 유통되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국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1989년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해 시작되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참여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자료의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간 한국 문화재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총 229,647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

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가 48.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대륙이 30.28%, 서유럽 국가들이 16.78%, 그밖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 2.96%, 북유럽이 1.22% 등으로 확인된다[표 1].

[표 1] 국외소재문화재단 조사 현황 및 한국문화재 지역별 소재 분포 (2023.01.01.기준)

지역구분	소장국	수량(%)		소계(%)	
북미대륙	미국	65,241	28.41%	69,536	30.28%
	캐나다	4,295	1.87%		
아시아	중국	13,010	5.67%	111,706	48.65%
	대만	3,073	1.34%		
	일본	95,622	41.64%		
	싱가포르	1	0.00%		
서유럽	영국	12,804	5.58%	38,558	16.78%
	프랑스	6,502	2.83%		
	독일	14,286	6.22%		
	네덜란드	1,999	0.87%		

- 1) 1990년대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1~2회에 걸쳐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총 13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참여하여 주로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 일본 외에 유럽과 미주지역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매해 1~3회의 조사를 시행하여 총 1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의궤가 귀환됨에 따라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다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2012년~2015년에는 무려 23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져 2010년대에만 총 30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이때 조사 대상도 미국의 여러 주를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중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문화재연구소·국외소재문화재단 발간 도서 목록 참고)

	벨기에	73	0.03%		
	오스트리아	1,799	0.78%		
	스위스	695	0.30%		
	바티칸	298	0.13%		
	이탈리아	70	0.03%		
	그리스	32	0.01%		
북유럽	덴마크	1,278	0.56%	2,776	1.22%
	스웨덴	1,417	0.62%		
	노르웨이	81	0.04%		
러시아 동유럽	러시아	5,380	2.34%	6,806	2.96%
	카자흐스탄	1,024	0.45%		
	슬로베니아	2	0.00%		
	체코	7	0.00%		
	폴란드	44	0.02%		
	헝가리	349	0.15%		
오세아니아	호주	262	0.12%	262	0.12%
근동	이스라엘	3	0.00%	3	0.00%
합계		229,647 (100%)			

이러한 조사를 통해 60여 건의 1차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를 기초로 학술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개별 박물관을 중심으로 소장품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었으며,²⁾ 2010년대 이후, 문화재의 미술사적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 이난영, 「미국소재 한국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상명사학』, vol.12, 2006; 강은주, 「사우스켄싱턴 박물관의 아시아 컬렉션 (1851년-1899년)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Vol.29, 서양미술사학회, 2008; 김영나, 김이순,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미술품 수집과 전시, 1850-1930」, 『미술사연구』, 제23호, 미술사연구회, 2009.

2019년 해외 주요 박물관들이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공개하면서 한국 문화재 수집에 관한 실증 자료를 채워가고 있다.³⁾ 이러한 연구는 해외 소장된 한국 문화재의 근대사적 의미와 국제적 인식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과 미주지역에 자리한 특정 박물관에

3) 박혜상, 「한국 근대기 고려청자의 미술품 인식 형성과 확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주현, 「독일인이 본 근대 한국: 독일 민속박물관의 한국유물 소장양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 박성원, 「일제강점기의경성미술구락부활동이한국근대미술 시장에끼친영향 : 『京城美術俱樂部創業二十年記念誌:朝鮮古美術業界二十年の回顧』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엄승희, 「근대기 한불(韓佛)의 도자교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2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3; 로잘리 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영국 빅 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6권, 국외소재문화재단, 2013; 신상철, 「19세기 프랑스 박물관에서의 한국미술 전시 역사: 샤를르 바라의 한국 여행과 기메박물관 한국실의 설립」, 『한국학연구』, vol.45, 고려 대학한국학연구소, 2013; 엄승희, 「근대기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의 한국 도자기 소장과 수용」,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2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안성희,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을 통해 본 근대기 고려자기의 이해와 수집의 한 형태」, 『陶藝研究』 No.24, 이화여자대학교도예연구소, 2015; ; 손영옥, 「한국 근대 미술 시장 형성사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일레노아 수아현,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영국박물관소장 한국 문화재』,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6; 김윤정, 「근대 미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vol.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6; 「근대 西歐의 시선으로 본 高麗圖經과 고려청자」,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No.77, 2019; 「근대 영국의 한국도자 컬렉션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 『문화재』 Vol.52 No.4,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9; 엄승희, 「근대 전환기 초대 프랑스 駐朝公使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의 도자 외교」, 『美術史學研究』 Vol.304 No.304, 한국미술사학회, 2019; 박대남, 「한국문화재 조사와 의의」,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6권, 국외소재문화재단, 2019; 최효진, 「20세기 초 영국 개인 수집가들의 한국도자 수집 :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정호경, 「근대 표상공간에서 형성된 한국 시각문화 연구-스웨덴 구스타브 컬렉션과 영국 르 블론드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문화재 조사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북유럽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 그중에서도 근대기 서구 사회에서 중요 컬렉션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도자기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북유럽 3국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대표 박물관의 아카이브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도자의 수집 배경과 양상, 성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Ⅱ. 북유럽 3국의 한국 문화재 유통 배경

북유럽으로 유통된 한국 문화재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재 수집 경험을 가진 수집가들이 조선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재를 취사선택해간 경우이다.⁴⁾ 이는 외교사절 및 국제적 규모의 무역회사 간부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 범위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일제 식민정부가 주도한 문화재 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물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어 해외로 선물되거나 일본 미술 시장을 통해 유럽으로 판매된 경우이다.⁵⁾ 이렇게

4) 김상엽, 「한국 근대 미술사 연구와 한국 근대 미술 시장사 연표」, 『동양고전연구』 제46집, 2012, 302~306쪽.

5) 小泉顯夫, “古墳發掘漫談,” 『朝鮮』 1932년 6월, 86~87쪽. ‘특히 死禰하는 뿌리가 강한 사상을 지닌 조선 민족으로서 어지간히 하급의 무식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고분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던 까닭일 것이다. 요즈음과 같은 참상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이든 병합 전후부터 일본인이 조선의 벽지에까지 들어간 후의 일이며,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래한 그들이 금사발이 묻혀 있는 것을 바랐음인지 정월 초하루에는 금닭이 묘 속에서 운다는 전설의 고분을 요즈음 유행하는 금광을 캐듯이 파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3

유통된 한국 도자는 영국과 함부르크 등에 조성된 골동 상점을 통해 또한 번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고 북유럽으로도 흘러 들어간다.⁶⁾ 끝으로 한국전쟁에 의료지원을 위해 파견된 북유럽 3국의 다양한 인력들이 수집해간 경우이다. 이 시기 한국 문화재 수집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각국의 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에서 확인된 한국 도자 역시 대부분 이 시기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한국 도자의 수집 배경을 국가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덴마크는 전신(電信) 설치를 위해 기술자를 파견한 1870년경부터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902년 한정수호통상조약(韓丁修好通商條約)을 맺은 후,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교류를 이어왔다.

덴마크 내부에서는 19세기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탐험과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민속품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849년 이를 소개하는 왕립민족학박물관(Royal Ethnographic Museum)의 건립이 추진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재를 포함한 여러 민족의 민속품들이 적극적으로 수집되었다. 이 중 한국 문화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오토 모흐니케(Otto G.H.Mohnike, 1814~1877)가 구입한 것으로, 이를 1853년 덴마크 민족학박물관이 입수하여 최초의 한국 컬렉션을 형성하였다(그림 1).⁷⁾ 이후 덴마크는 1870년경 조선과



[그림 1] 덴마크가 수집한 최초의 한국 문화재-오토 모흐니케 수집 조선 부채

쪽, 재인용).

- 6) 북유럽으로 거래된 기록은 이번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소장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7) 덴마크에 입수된 최초의 한국 문화재는 오토 모흐니케 (Otto G.H.Mohnike, 1814~1877)가 수집한 짚신과 부채로 바타비아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했던 페더 베링 리즈버그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한국 문화재 수집을 본격화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실제로 1892년 한국에서 영국 영사로 근무했던 덴마크인 야누스 오이센(Janus F. Oisen, 1857~1928)은 개항장에서 기산 풍속도를 직접 구매해가기도 하였으며 1918년 하얼빈 극동아시아 회사(The Denmark East Asiatic Company; ECA)를 운영한 헨리 야콥센(Henrik V. Jacobsen, 1887~1955)이 서울에서 초상화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는 덴마크국립박물관이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 무속과 관련된 복식과 장신구 등을 선물 받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에는 의료지원을 나왔던 인력들, 휴전 이후에 의료원 건립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들이 다수의 문화재를 수집해 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간 국립의료원에 근무했던 카이 알고트 칼박(Kaj Algot Kalbak, 1909-1992)은 1963년에서 1966년까지 도자기를 중심으로 금속공예, 가구, 의류, 악기, 종교 용품, 지도, 석불, 회화, 민화 등, 500여 점에 달하는 한국 문화재를 수집하여 덴마크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⁹⁾

스웨덴에서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스웨덴 왕세제 구스타브 아돌프 VI세(King Gustaf VI Adolf, 1882~1973)는 1909년 영국 미술 시장을 통해 고려청자를 구입하였으며, 1926년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경주 왕릉 발굴에 참관하여 조선총독으로부터 선물 받은 고려청자와 서울과 부산에서 직접 구매한 도자기 등을 스웨덴으로 가져와 동아시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한편,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한국 문화재는 1950년대, 중립국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스웨

(Peder Bering Liisberg, 1808~1858) 대령을 통해 덴마크민족학박물관으로 전해졌다.

8) 덴마크국립박물관 한국컬렉션 아카이브자료. ‘오이센이 구입한 기산풍속도는 1940년대 초 덴마크국립박물관에서 구입하였다.’ (<http://denmark.nfm.go.kr>)

9) 덴마크국립박물관 한국컬렉션 아카이브자료.

덴 의료진, 정부 인사, 행정기술관, 외교 인력 등에 의해 수집된 것들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박물관에 입수되었다. 이 중 앞서 덴마크국립박물관에 다량의 한국 문화재를 기증한 카이 알고트 칼박의 부인인 안니 칼박(Anni Kalbak, 미상)도 한국 도자 수집에 열의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녀가 수집한 한국 도자는 모두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에 기증되어 중요한 컬렉션을 이루고 있다.¹⁰⁾

노르웨이 역시 한국전쟁에 의료 인력을 파견한 국가 중 하나이다.¹¹⁾ 노르웨이는 1951년 장교와 사병, 군의관과 일반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1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1954년까지 민간인의 진료를 이어갔다. 이후 1956년에는 한국과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력을 맺고 스웨덴·덴마크와 함께 국립의료원 설립에 동참하였다. 이때 방한한 인력에 의해 한국 문화재가 수집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이 1980년대 이후 미술 시장에 나와 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¹²⁾

이와 같이 북유럽에서 한국 문화재를 수집한 것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I기는 20세기를 전후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까지로 제한적 범위에서 극소수의 문화재가 거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II기는 한국 문화재가 본격적으로 반출되기 시작한 1920~30년대로 일제 식민정부에 의해 한국 문화재가 덴마

10)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컬렉션 홈페이지 (https://collections.smvk.se/carlotta-om/web?utm_source=smvk&utm_medium=webblank&utm_campaign=0Mwebb)

11) 박지욱, 위의 논문, 2010, 191~192쪽. ‘한국전쟁에 의료 인력을 파견한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인도, 이탈리아로 모두 5개국이다.’

12) 노르웨이국립박물관의 아카이브 자료에는 한국 도자의 입수 경위가 거의 개인 수집가에 의한 기증인 것으로 확인된다. (<https://www.nasjonalmuseet.no>)

크, 스웨덴에게 전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기는 식민지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전후(戰後) 복구과정에 파견된 의료지원에 관계된 다양한 인력들에 의해 문화재 거래가 증가한 시기로 1970년대 문화재 반출 검열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IV기는 한국의 올림픽개최가 결정된 1980년대 이후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한국 문화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럽 내 미술 시장에 개인 소장가들에 의한 거래가 증가한 시기에 해당된다.

Ⅲ. 각국 대표 박물관의 한국 도자 수집 양상

본 장에서는 북유럽 3국의 대표 박물관이 제공하는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도자의 입수 연도와 수집 경위를 조사하여 시기별 수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유럽에서 거래된 한국 도자의 거래 가격과 동시기 중국 도자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한국 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1. 북유럽 3국의 한국 도자 수집 양상

덴마크국립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총 7명의 기증자와 구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³⁾ 이 가운데 도자기는 카이 알고트 칼박과 그레테

13) 오토 모호니케 (Otto G.H.Mohnike, 1814~1877) 수집품: 야콥센 (Henrik V. Jacobsen, 1887~1955) 기증; 야누스 F. 오이센 (Janus F. Oisen, 1857~1928) 기증; 헨리 제이콥슨야콥센 (Henrik V. Jacobsen, 1887~1955) 기증; 카이 알고트 칼박 (Kaj Algot Kalbak, 1909~1992) 기증; 대한민국 정부 기증; 신취동 (1935~1985) 기증. (<http://denmark.nfm.go.kr>)

짐센(Grete Zimsen, 미상), 구스타브 움라우프(I.F. Gustav Umlauff, 미상)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구입 시기와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입 연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수량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국립덴마크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입수 연도에 따른 재질별 수집 수량

입수 연도	수량	토기	도기	흑/갈유	청자	분청	백자
1905	1				1		
1963	84	20	2	5	24	8	25
1964	1				1		
1965	2						2
1966	5						5
합계	93	20	2	5	26	8	32

조사를 통해 덴마크로 유통된 한국 도자는 I기인 1905년경 시작되었으며 II기에는 회화나 민속품 외에 도자 거래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III기인 1960년대에는 의료진으로 방한한 카이 알고트 칼박에 의해 적극적인 수집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새롭게 입수된 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칼박 기증품을 제외한 한국 도자의 수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덴마크국립박물관이 한국 도자에 대한 소장 가치를 다른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칼박의 수집품만으로 수집 양상을 살펴보면, 종류별로 토기·청자·백자가 고른 수량으로 분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수집품 가운데 박물관에 기증된 수에 해당된 것으로 입수를 위한 기준이나 선호 대상이 존재했다기보다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유물으로써 도자기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은 북유럽 3국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도자를 소장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자료 또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입수 자료에 구매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입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수집 양상을 살펴본 후, 구매에 관한 기록을 통해 이를 보충해보고자 한다.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한국 도자의 입수와 관련하여 21건의 기증과 9건의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를 입수 연도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여 수량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입수 연도에 따른 재질별 수집 수량

입수 연도	수량	흑/갈유	청자	분청	백자
1932	3		3		
1944	1		1		

14) 구스타프 아돌프 6세 전 스웨덴 국왕 (King Gustaf VI Adolf, 1882~1973) 기증; 타게 그린발 (Tage Grönwall) 기증; 유재홍 대사 기증; 베르너 슈미트 (Werner Schmidt) 기증; 잉아 레이온 니스트룀(Inga Leijon Nyström) 기증; 옌스 바르빙에 (Jens Warfvinge) 기증; 군나르 홀트마르크 (Gunnar Hultmarks) 기증; 그레타 달스트룀 (Greta Dahlström) 기증; 오스발드 시렌 (Osvald Sirén, 1879~1966) 소장; 마르게리타 시렌 (Margherita Sirén) 유증; 리리아 군넬 (Gunnel Liljas)의 유증 안 테겔린(Jan Tengelin) 기증; 게르트루드 슌드그렌 백스트룀 (Gertrud Sundgren-Bäckström) 기증; 스웨덴 왕립도서관 기증; 한나 앙베르 (Hanna Engver) 기증; 게오르크 폰 베케시 (Georg Von Békésy) 소장, 노벨 재단; 옌스 와프윅(Jens Warfvinge)에 기증; 아르네 필츠의 기념으로 기증; 군넬 릴야스 안 테겔린 (Testam enterad gåva av Gunnel Lilja, genom Jan Tengelin) 통하여 유증; 익명의 기증자; 엘스벳 폰흐(1873~1943)로부터 구입; 안니 칼박 (Anni Kalbak)으로부터 구입; 아르네 필츠 (Arne Piltz)의 유증을 받은 솔베이그 용스트룀 필츠 (Solveig Ljungström-Piltz)로부터 구입; 군넬 리리아 (Gunnel Lilja)로부터 구입; 국무 장관인 올레 헬베리(Olle Hellberg)로부터 구입; 게르트루드 슌드그렌 백스트룀 (Gertrud Sundgren-Bäckström)으로부터 구입. (https://collections.smvk.se/carlotta-om/web?utm_source=smvk&utm_medium=webblank&utm_campaign=OMweb)

근현대 북유럽 3국으로 유통된 한국 도자의 수집 양상과 성격

1966	1		1		
1968	1		1		
1971	1		1		
1972	3			2	1
1973	7		7		
1974	15	1	14		
1975	5		5		
1976	1			1	
1978	3				3
1979	3			1	2
1981	1				1
1984	6		2	1	3
1985	1				1
1987	45		14	13	18
1988	11		4		7
1989	15				15
1991	1		1		
1996	8	1	4	1	2
1999	3		3		
2012	12		1		11
2015	3		2	1	
미상	5		1		4
합계	155	2	65	20	68

동아시아박물관에 한국 도자가 입수되기 시작한 것은 Ⅱ기부터로 청자가 수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기인 1970년대 전반에는 청자의 입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청사기와 백자로 수집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Ⅳ기에 들어서면 백자를 중심으로 한국 도자의 입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수집의 대상이 전반기에는 청자, 후반기에는 백자로 변화된 것이다.

한편, 구스타브 아돌프 Ⅵ세의 수집품은 유럽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시점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그를 통해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으로 입수된 한국

도자는 모두 청자이며 구입 시기는 I기인 1909년, 1911년, 1912년의 3건과 II기인 1920년과 1923년의 2건, III기인 1965년과 1972년의 2건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스웨덴에서는 I기부터 이미 한국 도자가 수집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IV기인 2015년까지 박물관이 주도하여 꾸준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르웨이국립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에서 제공하는 한국 도자에 관한 입수 내역은 1972년부터 2000년까지 총 7건 확인된다. 입수는 수집가의 사망 이후 기증된 2건, 일반기증으로 입수된 30건 외에 2건의 구입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기증자 정보와 같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입수 연도에 따라 종류별 수량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표 4].

[표 4] 국립노르웨이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입수 연도에 따른 재질별 수집 수량

수집 연도	수량	토기	청자	분청	백자	기타
1983	13	2	9	2		
1984	1		1			
1986	10		4			6
1992	1		1			
1998	5		1	1	2	1
2000	4				4	
합계	34	2	16	3	6	7

조사를 통해 한국 도자는 대부분 IV기인 1983년과 1986년에 수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입수품의 상당수가 양질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이 내재된 가운데 필요에 의해 수집이 이루어졌거나 선별된 자료만을 아카이브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때 1980년대 이후 돌연 한국 도자의 수집이 시작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전쟁에 파견된 인력에 의해 수집된 도자가 1981년 서울올림픽 개최 확정과 함께 한국에 관한 관심 증가로 박물관에 기증되었을 가능성, 혹은 국내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된 이래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자 해외에 소재한 한국 도자의 가격이 상승하여 미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⁵⁾ 이에 따라 개인 소장가의 기증과 박물관 측에서의 구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이같이 노르웨이에서 한국 도자의 수집은 III기에 들어서야 시작이 되었으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인 IV기부터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거래된 한국 도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는지 다음 절에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한국 도자의 경제적 가치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에는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소장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스타브 아돌프 VI세 컬렉션은 고려청자의 연도별 구입처와 거래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표 5].

15) 『문화재감정관실 50주년 기념식·심포지엄』, 문화재청, 2018, 23쪽. ‘우리나라는 문화재 반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67년 출입국장에 감정관실을 설치하여 이를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8년 김포와 부산 출국장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1983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감정의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표 5] 구스타브 아돌프 6세가 영국에서 구입한 한국 도자 구매 내역

	구입품	구입 연도	구입처	구입 금액(£)	현 시세 환산금액(£)	환전금액 (₩)
1		1909년	런던 Franck Co.	2	305	482,000
2		1911년	런던 Bluett & Sons	6	904	1,428,000
3		1912년	런던 Bluett & Sons	10	1,461	2,309,000
4		1920년	런던 Bluett & Sons	7.10	406	641,000
5		1923년	런던 Yamaka	4	309	488,000
6		1965년	런던 Bluett & Sons	48	1,189	1,879,000
7		1972년	런던 Bluett & Sons	250	4,220	6,669,000

구스타브 아돌프 VI세가 유럽에서 구입한 한국 도자는 모두 고려청자로 1909년부터 1972년까지 총 7건이 확인된다. 거래된 청자는 품질과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거래 금액만을 두고 보았을 때 I기 구입품은 £2에서 £10에 거래되었으며, II기에는 £10이하로 거래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경주와 서울, 평양에서 청자와 백자, 흑유자 등을 구입했던 경험으로 유럽 미술 시장에서의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¹⁶⁾ 이후 19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문화재 수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IV기인 1950년대 말경, 도자의 수집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한국 도자는 £48에서 £250으로 4배가량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미국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물가 변동 수치에 따라 현재의 시세로 환산해보면,¹⁷⁾ 1909년에 거래된 접시는 약 £305(약 48만원)에, 1965년에 거래된 절요접시는 약 £1,189(188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1972년 구입한 청자무문반의 경우, 현재의 시세로 £4,220(667만원)라는 높은 금액에 매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화재 반출 금지법 지정에 따른 희소가치의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가격 결정의 기준은 1911년 약 £904(약143만원)에 구입한 완을 통해 유색과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입수된 중국 도자 중 한국 도자와 동일한 상점에서 구매된 물품의 가격을 통해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런던 ‘Franck Co.’와 ‘Bluett & Sons’에서 구입한 중국 도자 구매 내역이다[표 6].

16) 구스타브 아돌프 6세가 1926년 국내에서 구입한 한국 도자 구매 내역

구매 연도	1926년	1926년	1926년	1926년	1926년
사진	사진 없음				
유물명	청자팔각 접시	청자퇴주 기	청자완	백자양각 호	청자상감 유병
구매가	¥50	¥13	¥3	¥4	¥8
구매지역	경주	경주	경주	서울	서울

17) CPI. Inflation Calculator.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inflation/inflation-calculator>)

[표 6] 동아시아박물관에 입수된 중국 도자 가운데 런던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

연번	사진	유물명	시대	유물번호	구입연도	구입가 (£)	구입처
1		정요백자접시	송	OM-1974-0909	1910	15	런던 Franck Co.
2		건요잔	송	OM-1974-0927	1920	5	런던 Bluett & Sons
3		용천요 향로	송	OM-1974-0926	1920	10	런던 Franck Co.
4		여요향로	송	OM-1974-0932	1922	38,10. 18)	런던 Bluett & Sons
5		용천요접시	원	OM-1974-0933	1922	2,10.	런던 Bluett & Sons
6		삼채호	당	OM-1974-0865	1931	22,10.	런던 Bluett & Sons
7		백자완	당	OM-1974-0866	1933	9	런던 Bluett & Sons
8		경덕진청화백자접시	명	OM-1974-1069	1957	3	런던 Bluett & Sons
9		경덕진백자완	청	OM-1974-1139	1965	15	런던 Bluett & Sons

18) 해당 기록에는 쉽표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 두 자리만이 적힌 것으로 보아 소수점의 오기로 판단된다. 만일 쉽표 이하 세 자리 수가 잘표 표기된 것이라면 1920년대 용천요 향로가 10파운드에 거래되었던 것이 1922년 용천요 접시의 가격이 2,100파운드로 무려 200배가량 치솟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중국 도자가 1930년대에도 10파운드 이내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는 22파운드 10펜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런던에서 거래된 중국 도자는 1910년 £15가량에 거래되었고, 1920년대 £5에서 £38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북송 여요와 당삼채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1965년대에는 £15에 구매된 경덕진 백자만이 확인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가격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구매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동시기 거래된 고려청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집가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나 희소가치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양질의 도자라도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저렴하게 거래되었던 것이라 추정된다.

결국, 유럽에서 거래된 고려청자, 적어도 구스타브 아돌프 VI세가 구매한 청자들은 당시 유럽에서도 높은 희소가치에 따라 고가에 매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아카이브 자료 한국 도자의 특징과 성격

본 장에서는 북유럽 3국에 소재한 한국 도자를 국가별로 나누어 각국에 수집된 도자를 살펴보고 시기에 따른 수집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도자는 종류별 기종 분류와 장식기법 및 문양 소재 등을 파악하여 조형적 특징을 살펴본 뒤, 각 박물관의 수집 경향을 기초로 수집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덴마크국립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총 91건의 한국 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소장품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장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표 7] 덴마크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수집 양상

	도자류	지류	청동	금속제	목제	기와	복식	기타	합계
삼국시대	17								17
통일신라	3		3			5			11
고려시대	26		15						41
조선시대	37	110	4	14	22		15	6	208
근현대	8	18		13	27		29		95
미상				1					1
합계	91	128	22	28	49	5	44	6	373

이 가운데 자기류에 해당하는 73건을 기종에 따른 종류를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표 8].

[표 8] 덴마크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기종에 따른 재질별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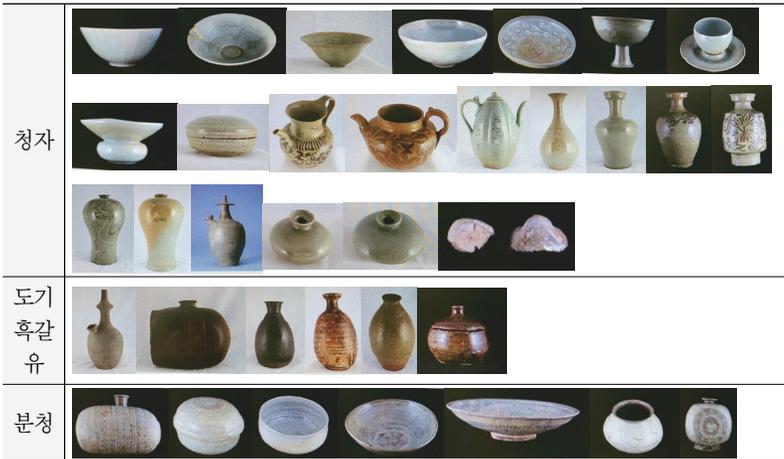
구분	도기	흑/갈유	청자	분청사기	백자	합계
대접			1			1
발			2	2	2	6
반발				1	1	2
완			2			2
잔			1			1
잔탁			1			1
접시				1	1	2
병	1	2	4		14	21
편병				1		1
매병			3			3
유병			2			2
정병	1		1			2
호		1		1	8	10
타호			1			1
주자			3			3
필통					2	2

근현대 북유럽 3국으로 유통된 한국 도자의 수집 양상과 성격

연적					2	2
합		1	1	1		3
장군		1		1		2
고족배			1			1
상형			1			1
지석					1	1
기타			1		2	3
합계	2	5	25	8	32	73

소장된 한국 도자는 종류에 따라 도기, 흑유, 갈유,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백자의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수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이 알고트 칼박 컬렉션을 살펴보면, 백자, 청자, 토기가 유사한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청자와 백자 일부에서 근현대 작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표 9] 카이 알고트 칼박 수집 도자





기종별로는 고려시대 청자 식반류(食盤類)인 발, 완, 잔, 잔탁이 7건, 특수 기종에 해당하는 병, 매병, 유병, 정병, 주자, 타호, 장군 등이 12건으로 특수기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분청사기는 발 2점 외에 대접, 접시, 편병, 호, 합, 장군이 각 1점이며, 백자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제작된 것들로 발과 접시와 같은 식반류는 3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병, 호, 문방구류와 같은 특수기종에 해당한다.

문양 기법을 주목해볼 때, 고려시대 청자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철화문과 중후기에 제작된 상감청자가, 분청사기는 16C에 제작된 인화문이, 백자는 18C에서 19C에 해당하는 청화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철화, 상감, 인화문 도자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기존 동아시아 도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양 장식이 수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양의 소재는 12~13세기 청자에 시문된 화훼절지문과 18~19세기 백자에 시문된 수복문과 같은 문자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문양 소재 역시 한국적 특징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이며 소장품의 극히 일부만이 상품(上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평이한 구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로 한국적 특색이라고 인식된 철화청자, 인화분청, 수복문백자와 같은 한국 도자가 수집의 대상

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덴마크국립박물관에 입수된 한국 도자는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토기와 함께 민족학적 관점에서 수집된 민속품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는 700여 건에 이르며 이중 아카이브자료를 통해 510건에 대한 세부 정부를 공개하고 있다[표 10].

[표 10]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수집 양상

구분	도자류	금속기	옥제	목제	석제	서지류	불상	사진	기타	합계
삼국시대	48	5	6							59
통일신라	11						4		2 (와당)	17
고려시대	56	174			1					231
조선시대	79		1	7		53			3 (목판)	143
20세기	7		3	4		11		29	6 (복식)	60
합계	201	179	10	11	1	64	4	29	11	510

소장된 한국 문화재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도토류로 총 201건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토기를 제외한 142건의 자기류의 조형적 특징을 주목하고자 종류에 따라 기종을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표 11].

[표 11]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기종에 따른 재질별 수량

구분	청자	분청	백자	기타	합계
대접	2	3			5
완	4				4
발	13	11	7		31
잔	7		1		8
잔탁	2		2		4
접시	7	2			9
제기접시			1		1
전접시			1		1
유개발			1		1
합계	2				2
호		1	9	1	11
주자	3				3
연적			15		15
향로		1		1	2
병	5	1	13	2	21
유병	4				4
매병	4				4
정병	2				2
떡살			2		2
필통			1		1
타호	1		1		2
고죽배		3	1		4
장군		1			1
상형	2				2
촛대	2				2
합계	60	23	55	4	142

종류별로 볼 때 고려시대 청자는 51건,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15건, 백자는 49건으로 조형 분석을 통해 청자와 백자에 근현대작품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종별로는 청자의 경우 발과 잔, 접시와 같은 식반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기종으로는 병이나 유병, 매병, 주자가 확인되나 수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분청사기는 발이 주종을 이루며 백자의 경우, 연적과 병이 가장 많은 수량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청자는 양질의 식반류가 많은 반면, 백자는 특수기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양 기법은 12C를 중심으로 한 무문청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상감청자가 다음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청사기의 경우 15C에서 16C에 제작된 인화문이 가장 많으며, 백자의 경우 18C에서 19C에 제작된 청화, 동화, 진사를 사용한 채색자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양의 소재는 국화, 모란, 연화와 같은 화문대를 두른 12~13세기 청자와 18세기 제작된 산수과 수복강령을 상징하는 문양 및 상형의 백자가 주요 수집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 수집된 한국 도자는 최상품의 품질이거나 특정 문양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집된 것들로 미술품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기부터 III기까지 수집된 구스타브 아돌프 VI세의 컬렉션은 한국 도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IV기를 대표하는 안니 칼박 기증품 역시 일부 근현대작을 제외하곤 대부분 특정 문양과 속성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12].

[표 12] 안니 칼박 수집 도자



노르웨이국립박물관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는 197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어 노르웨이 국립역사박물관에 선사시대 유물과 고대 토기가 다수 소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그러나 현재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세부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며 국립박물관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의 일부만이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표 13].

[표 13] 노르웨이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수집 양상

구분	도자류	금속기	기와	합계
삼국시대	2		1	3
통일신라	1			1
고려시대	10	1		11
조선시대	6			6
근현대	10			10
기타	6			6
합계(건)	35	1	1	37

노르웨이국립박물관은 한국의 토기 4건을 포함하여 36건의 도자류에 대한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토기를 제외한 고려시대 청자 14건과 조선시대 분청사기 2건, 백자 8건 및 기타 시대 미상과 근현대 도자기 8건에 대한 기종만을 분류하고자 한다[표 14].

[표 14] 노르웨이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기종에 따른 재질별 수량

구분	청자	분청사기	백자	기타	합계
대접	2				2
발	2	2	1		5

19) 이종철, 「북구의 한국 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 『문화재』 vol.13, 1980, 298~299쪽.

완	2				2
잔	1			5	6
접시	2				2
병	2		3		5
매병	1	1			2
유병	1				1
호			3	2	5
주자				1	1
기타			1		1
합계	13	3	8	8	32

기종별로는 반상기에 해당하는 발, 완류의 청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자는 병, 호와 같은 특수기종이 상당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5].

[표 15]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입수 형태와 연도에 따른 소장 구분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에 입수된 한국 도자는 문양 기법의 측면에서 볼 때, 청자의 경우, 무문, 음각, 철화, 압출양각, 상감이 고루 확인되며 분청사기의 경우, 모두 인화문이 시문되었고 백자의 경우, 모두 청화로 장식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양 소재는 청자의 경우, 13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여지문, 운학문, 국화절지문과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철화초화문이 주요 수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백자는 초화문 및 용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국 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에 의도적으로 다양한 종류를 수집한 것이라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한 편이나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문양과 기법이 겹치지 않고 개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수집이 이루어졌다기보다 한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써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품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유럽 3국의 대표 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도자는 개인에 의해 기증하거나 구입된 것을 박물관이 심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아카이빙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박물관이 가진 한국 도자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한국적 특색을 나타내는 물품으로 수집된 민속품적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화적 가치를 수반하여 특정 취향에 맞춰 수집된 미술품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볼 때, 덴마크에서는 한국 도자를 민족학적 관점에서 타문화를 인식했던 근대 서구의 시각으로 III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기법과 문양의 도자를 수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영국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고려청자를 이미 I기부터 미술품적 관점에서 수집하기 시작하여 IV기까지 지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III기부터 도자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나 박물관에 입수된 내역을 통해 IV기가 되어서야 다양한 기법과 문양 장식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도자가 소량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도자를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를 주목하여 이것이 수집된 배경을 살펴보고, 소장품의 입수 경위와 수집연대를 분석하여 시기에 따른 수집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영국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구매 이력을 확인하여 시기별 매매가를 살펴본 뒤, 동시기 거래된 중국 도자와 비교를 통해 한국 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북유럽 3국에 흘러 들어간 한국 도자의 종류와 기종, 장식기법과 문양 소재 등을 분석하여 각국이 수집한 한국 도자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해보았다.

국가별로 나누어 시기에 따른 수집 양상을 정리해보면, 먼저, 덴마크에서는 I기인 1905년경부터 청자가 입수되었으며 III기인 1960년대 의료진으로 내방한 카이 알고트 칼박에 의해 적극적인 수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II기부터 구스타브 아돌프 VI세에 의해 청자의 구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III기인 1970년대 전반 박물관에 기증된 후, 개인 수집가의 기증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IV기에는 한국을 방문한 안니 칼박이 수집한 백자가 동아시아박물관에 다량 입수되면서 한국 도자 컬렉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대부분 IV기에 해당하는 1983년과 1986년에 한국 도자의 기증과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각국에 수집된 한국 도자 특징을 살펴보면, 덴마크에서는 상품(上品)의 자기보다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나 한국적 장식성이 드러난 도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한국 도자의 수량이 매우 적고 장식과 문양에 중복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도자는 한국적 특색을 갖는 물품으로 인식되어 의도적으로 특징적인 도자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문양과 유색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수집된 도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 거래된 고려청자의 매매가를 통해 중국 도자와 비교해도 고가의 미술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해외에 소장된 한국 도자의 유통 배경과 성격을 이전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실제 거래된 매매가를 바탕으로 한국 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보았다는 점, 수집품의 특징을 통해 각국의 수집 성격을 추론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들: 한국의 근대 수집가와 수집의 문화사』, 돌베개, 2015.
_____, 「한국 근대의 고미술시장과 경매」, 『경매된 서화』, 시공아트, 2005.
백성현, 이한우, 「파리 만국박람회」,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1999.
변광수, 『세계각국사 9-북유럽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5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 2018.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2013.
임명방, 『중세유럽의 형성』, 형설출판사, 1983.
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증보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2. 논문

-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서봉총의 발굴」,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 13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김경민, 「영국 돈황 컬렉션으로 본 제국주의와 문화재」, 『학림』, vol.37, 2016.
김상엽, 「한국 근대 미술사 연구와 한국 근대 미술 시장사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46집, 2012.
박용희, 「19세기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동양사학회 학술회 발표논문집』, 동양사학회, 2009.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의사학』 19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10.
손영옥, 「개항기 서양인이 미술 시장에 끼친 영향 연구」, 『東洋古典研究』 Vol.46, 동양고전학회, 2012.
_____, 「한국 근대 미술 시장 형성사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상현, 「18세기와 19세기의 독일 민속학: 민족주의 이념과 민속학 연구」, 『비교

- 민속학』, vol.17, 1999.
- 이소현, 「서구 근대기 전시제도와 공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구」, 『기초 조형학 연구』, 17권, 4호(통권7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종철, 「북구의 한국 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박물관 소고」, 『문화재』vo13, 1980.
- 전형호, 「기산풍속화의 분류에 따른 소장처별 특징과 민속학적 의미」, 『민속학 연구』제47호, 2020.
- 정호경, 「근대 표상공간에서 형성된 한국 시각문화 연구 -스웨덴 구스타브 컬렉션과 영국 르 블론드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조대연, 「근대국가의 형성,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 『인문논총』 vol.72,no.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 황수영,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考古美術資料』第22輯, 한국미술사학회, 1973,

3. 기타

-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
- 국외소재문화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
- 덴마크국립박물관 <https://natmus.dk/>
- 덴마크국립박물관 한국컬렉션 아카이브자료 <http://denmark.nfm.go.kr>
-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http://www.varldskulturmuseerna.se/>
-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컬렉션 홈페이지 https://collections.smvk.se/carlotta-om/webb?utm_source=smvk&utm_medium=webblank&utm_campaign=OMwebb
- 노르웨이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nasjonalmuseet.no/>
- CPI. Inflation Calculator.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inflation/inflation-calculator>

Abstract

COLLECTION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ERAMICS DISTRIBUT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NORTHERN EUROPE

CHANG CHIYOUNG (CHANG, CHI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eramics recognized in each country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background, collection pattern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ceramics distribut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Northern Europe.

Korean ceramics that flowed into the three Nordic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First, period I from the opening of ports around the 20th century to the 1910s whe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gan, and period II from the 1920s and 1930s when cultural assets were exported in earnest. The period before the 1980s was considered as the III period, and the period from the 1980s to the 2000s, when individual donations increased as interest in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creased with the decision to host the Seoul Olympics, as the IV period.

Based on this, the collection patterns of Korean ceramics by period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archive materials of the three institutions representing the three Nordic countries. In addition, through the archive materials of the Swedish East Asian Museum,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e could be estimated by comparing the selling price of Korean ceramics

traded in the British art market with Chinese ceramics. Afterwards, Korean ceramics collected in the three Nordic countries were classified by typ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ach decorative technique and pattern material was analyzed. Through th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Korean ceramics in the Swedish Museum of East Asian Art were collected by the nature of art objects, and it was judged that 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 and the National Museum of Norway collected Korean ceramics from the viewpoint of folk art.

Key Words : Ceramics of Modern era, Northern Europe, Ceramic collection, Korean cultural Heritage, Korean ceramics